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남선교회 · 여전도회 새로 편성

17일(수) I · II부 예배 후 총회 갖기로

우리 교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새롭게 탈바꿈한다.

교회는 기존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목적과 조직을 개편, 17일(수) 여전도회는 I부 예배 후, 남선교회는 II부 예배 후 각각 총회를 거쳐 새 조직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선교회 및 전도회의 개편은 보다 원활한 조직과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국민의 75%를 복음화하는 전도 사역의 역군으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며 전세계를 복음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우선 원활한 전도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선교회 및 전도회 조직을 30세부터 연령별로 각기 7개 부서로 나누었다. 남선교회는 빌립, 안드레, 베드로, 바울,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등으로, 여전도회는 도르가, 루디아, 비비, 마리아, 에스더, 한나, 사라 등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각 부별 준비위원을 6명씩 임명했다. 이번 총회를 위해 아래 도표의 첫번째 사람이 소집

책임자가 된다. <아래 표 참조>

또 전도 사역을 다하기 위해 감당할 목적과 사업을 새롭게 정했다. 우선 국내 전도를 위해 기존 도시 전도와 농어촌(도서)100교회 지원 전도 등에 계속 힘쓰도록 했다.

아울러 비전2020운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교도소와 각 기관 그리고 경찰, 유치장, 병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 찾아 전도에 나서고 확원과 마스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한편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세미나, 김치세미나 등 교회가 개최하는 신학세미나를 보다 역동적으로 지원하고 매년 열리는 바자와 사망자대회 등 교회 제반 행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노회 25회 정기회

서울 강남노회 제 25회 정기회가 9일 소망교회당에서 열린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종운 목사를 비롯해 부목사 전원환 박철훈 · 오정수 · 이영기 · 성준경 · 김영준 · 김상철 장로가 총대로 참여한다.

스데반회 간사 임명



홍성주 집사

당회는 2000년도 스테반회 간사에 홍성주 집사 <사진>를 임명했다. 스테반회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 모임으로 교회의 제반 봉사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부서다.

권사회 회장단 임명



이옥현 권사



최정자 권사

당회는 2000년도 제 1권사회 회장 이옥현 권사<사진> 부회장 심재을, 김동호 권사를 임명했으며, 제 2권사회 회장 최정자 권사<사진> 부회장 이해순, 김예환 권사를 임명했다.

▼남선교회

명칭	해당연령(출생연도)	준비위원	총회장소
빌립	30 - 39세(1961~1970년생)	오승민 성춘모 정세영 김혜연 이성근 유형석	403호
안드레	40 - 44세(1956~1960년생)	김금준 광동희 송인권 이강인 최차순 안인호	303호
베드로	45 - 49세(1951~1955년생)	임상헌 신용식 김광옥 양인수 김성준 최형열	301호
바울	50 - 54세(1946~1950년생)	오유식 손병석 우유명 하인선 이학주 정무균	302호
엘리아	55 - 59세(1941~1945년생)	조용식 임옥균 탁경준 이찬호 윤운식 장양일	202호
모세	60 - 64세(1936~1940년생)	오형철 신순우 박두영 안창희 이재운 김영주	본당(좌)
아브라함	65세 이상(1935~)	정빈모 김진호 박근준 김만선 강종심 이덕빈	본당(우)

▼여전도회

명칭	해당연령(출생연도)	준비위원	총회장소
도르가	30 - 39세(1961~1970년생)	제오복 서희자 조숙경 이현주 이명신 김영란	403호
루디아	40 - 44세(1956~1960년생)	허 숙 김정란 김신영 박미혜 유숙인 이명아	303호
비비	45 - 49세(1951~1955년생)	김상옥 김정운 송숙영 원영애 임희춘 한정아	301호
마리아	50 - 54세(1946~1950년생)	이은옥 남태순 유명석 이연숙 이운진 황정임	302호
에스더	55 - 59세(1941~1945년생)	전수자 권순단 이은희 정봉금 강희자 손재점	202호
한나	60 - 64세(1936~1940년생)	이영자 전정순 이순례 김연옥 김영현 전완순	본당(좌)
사라	65세 이상(1935~)	유복달 권영옥 김종자 방계운 최 완 송영강	본당(우)

이번주 사명지대의 주요행사

- ▶50일 연속기도회: 2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5일)
 - 주력 교구 및 부서: 7·8교구, 마리아전도회, 유아부, 유치부, 시온찬양대
- ▶70인 전도대 훈련: 13일(토) 오후 2시
- ▶전도 교육
 - 11월 10일(수) I·II부 예배 후 다락방별
 - 참가 범위: 지역장, 다락방장, 권찰
- ▶노방전도
 - 전도회별 노방 전도: 7일(주일)예배 후 담당 부서: 베드로선교회, 루디아전도회
 - 병원 전도(대학부, 청년부): 주간에 계속
 - 등산 전도: 13일(토) 청계산, 우면산
- ▶태신자 전도: 문서 전도, 심방 전도, 일대일 책임 전도 결실, 등록한 성도와의 교제
- ▶다락방 배가 운동: 가족 · 이웃 · 친지 초청 전도
- ▶가족초청 전도: 한가족 한교회 운동
- ▶잃은 양 찾기 운동: 친분 가진 성도로 구성하여 심방, 잃은 양 실태 파악 · 보고 및 다락방별 합심 기도

이사야 강해

정책 후에 주신 위로

이사야 29장 15 - 24절

하나님은 때리시다가 싸매 주시고 책망하신 후에 다시 그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1.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입니다(15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잇수르나 혹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비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이사야가 알면 책망할 것이므로 그에게 비밀로 하고 애굽과의 협정을 은밀히 추진한 것입니다. 저들은 이사야의 눈만 피하면 하나님도 보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총명을 논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창조주이심을 부인하는 일입니다(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시 139:1 - 16).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이미 거기 에 와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시 94:9). 하나님을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책망하시며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포로를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사 29:1 - 8). 그들은 영적으로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애굽과 비밀협정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이것을 두고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러나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엄중히 경계한 후 유다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레바논 산맥은 고산이므로 백향목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낮아져 기름진 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누릴 행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22절).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므로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라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사 29:15 - 24)



이종운 목사

유로 잇수르와 같이 교만한 높은 세력이 무너져 낮은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본문 17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맞고 있으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끝자기를 돌우듯이 높여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됩니다(18절).

메시아의 축복은 부자와 강자가 아닌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19절). 하나님은 또한 원수를 멸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20 - 21절). 강포한 자, 오만한 자들과 그들의 죄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3. 하나님 백성의 구원 약속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란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입니다.

씀으로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것입니다(23절).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24절).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커머거리, 소경 같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명을 얻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혼미하던 자는 주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십니다.

말씀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농촌교회를 다녀와서 ●

만주의 농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것

나중영 (집사, 바울 1선교회)

전교회적으로 사명자 대회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우리 바울 1선교회(회장 오유식 집사)는 지난 2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종윤 담임 목사님의 출발 기도를 받으며 오래 전부터 예정하였던 목격지 전북 무주군 소재 내도 중앙교회를 향하여 기쁜 마음을 안고 떠날 수 있었다. 남녀 성도 4명씩 8명의 회원 가족이 두 대의 승용차에 분승하여 믿음의 형제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안고 떠나는 순간이었다.

이른 아침인지라 바깥 기온은 늦가을 특유의 상쾌한 냉기가 스며 들었고 하늘은 이날 따라 더없이 푸르렀다. 산과 들은 가을 빛으로 온통 물감을 뿌려 놓은 듯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남으로 남으로 속도감을 더해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차창으로 벌써 따뜻한 햇살이 곰살스럽게 느껴져 왔다. 때로 만추의 수확을 거두는 들녘의 스케치 속엔 흡사 밀레의 만풍을 연상시키는 모습들이 시야에 잡혀 오기도 하였다. 지난 여름의 폭염 속

에서 위대한 생산의 한 철을 지낸 대지는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며 휴식의 고요한 적막이 고즈넉이 감돌고 있었다.

차가 대전의 고속도로를 지나 국도를 접어들어 충북 영동을 빠져 나와 무주를 향해 질주하는 동안 손에 잡힐 듯 탐스럽게 익은 붉은 사과밭과 이제 채산성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끝물 포도밭이 시야에 자주 조영되어 경작 농민들의 애환이 감지되는 듯 싶었다.

우리의 심방을 기다리고 있던 그곳 정장현 전도사님 내외의 반가운 손목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출발 3시간쯤 지난 정오가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간단히 인사를 끝낸 일행은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 가지고 간 이종윤 담임 목사님의 출간 서적 두 문지와 찬송가반주기 그리고 약간의 정성어린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교회가 현재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을 이미 알고 있는 정 전도사님의 고마움의 표시는 자못

특별한 것이었다. 출석 교인 20여명 중 60대 이상 노년층이 성도의 대부분인 점을 듣자 이 역시 다른 농촌 교회 실정과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한 젊은 정 전도사의 열변 속에는 침체된 오늘의 농촌 현실을 안타깝게 걱정하는 진지함이 배어 있었고 그래서 더욱 농촌 교회의 참된 사명과 존재의 몫을 강조하는 듯 싶었다.

비가 오면 퇴락한 성전의 이곳 저곳이 줄줄이 새는 현상과 코앞에 다가온 겨울의 한파를 막아내기 위한 긴급처방을 우리 바울 선교회와 이 문제를 공동으로 진지하게 풀어보자는 서로의 뜻을 굳히고 당 선교회 오유식 회장은 준비해간 줄자를 들고 최소의 비용을 산출키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웃에 방치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모습과 자매 교회의 퇴락한 모습을 뒤로 하며 떠나오면서 오늘 우리네 농촌의 밝지 못한 실상과 이것이 주는 현실의 중압감이 무겁게 우리의 의식을 짓누르는 것이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범위가 더욱 새로워지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발길을 돌렸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희망의 결실을

최용걸(집사, 바울 6교회)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100교회 중 우리 바울 제 6선교회는 새화순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 5월 중 우리는 새화순교회를 방문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차일피일하며 일정이 늦춰져 왔다. 그러나 해를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몇몇 회원들 간에 어렵게 시간을 맞춰 나와 최일춘 집사, 정용철 집사와 김운자 권사, 김관홍 집사와 황인숙 집사 등 세 부부가 새화순교회로 향했다.

교회 성도 자녀의 결혼식이 두 건 있어 거기에 참석한 후 출발했기 때문에 전북 고창군의 한 산장에서 자연과 더불어 1박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광주시를 거쳐 목격지에 도착했다.

새화순교회에 도착하자 곧 간단히 도착 감사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그곳 교회에서 시무하고 계시는 정정복 목사님에게 사역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한 우리 교회가

중윤 목사님의 강해 서적을 선물로 드렸다.

새화순교회는 지난 1997년도에 2가정으로 시작되어 현재 등록교인이 60여 명에 달하는 교회다. 하지만 실제 출석교인은 25명 내지 3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이선교원을 운영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대광아파트에 약 100여 가구가 있어, 멀지 않아 미자립 교회의 모자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였다.

가는 길 차창에 엔진 이상이 생기기도 했고 가지고 갔던 돌아오던 길에 가지고 갔던 가방을 두고 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다녀와야 하는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신 것에 감사드렸다.

우리 교회가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를 돕기로 결의하고 100교회 운동을 시작한 것이 벌써 5년째다. 도시화의 추세 속에서 이농현상과 더불어 날로 쇠퇴해가는 농어촌과 그곳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보다 이미 있는 농어촌 교회에 힘을 주어 자립하도록 도움으로써 민족복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작다. 그러나 이 일을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는 것은 목회의 장소와 방법은 다를지 모르나 우리 도시 교회나 농어촌의 교회가 모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요 2020년 우리 민족 75%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과 민족복음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교회가 새 힘을 얻고 부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또 이 일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감격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복을 누리고 있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9 사명자대회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송옥혜	장형숙
이우상	이혜일
무명	안평 심재수 허규택





“군대라는 곳,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오순배 (대학부)

저는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한 부대에서 81미터 박격포(42Kg)을 주특기로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무거운 것을 이산 처산 들고 뛰다 보니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무게는 10Kg 쪼고 키도 2cm나 컸습니다. 팔뚝이 소대에서 제일 굵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보내주는 책으로 불침번이 끝나면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는 불침번 서는 1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길고 지리한 시간이지만 주님과 이야기하며 걸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거든요. 다니고 있는 부대 내의 교회도 좋습니다. 교회에만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서울교회 생각이 많이 나며 그립습니다.

12월 쯤엔 군종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자대에 와서는 업무조차 못내던 일인데... 많은 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밤에 15분 동안 갖는 종교별모임 중 기독교 모임

을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등병 때엔 많은 고참들 앞에서 모임을 인도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담대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리스찬임을 강조하고 다녔더니 교회에 못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끔 기독교에 불만이 있는 한 두 고참이 따지고 들 때면 한 시간동안 열심히 대답해야 하는 게 힘이 들 뿐입니다. 말도 안되는 걸 억지부리거든요. 그럴 때면 그냥 웃어버리곤 합니다. 아무튼 군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더불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모임을 할 때 보면 중대 120명 중에서 50명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 사회에서 교회 다녔던 사람도 3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은 십여 명 정도이고 또 교회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가 이등병이고 교회에 가지마자 자다가 간식만 먹고 옵니다. 기독교인인 상병이나 병장들은 TV만 보고 놀려고만 하지

교회 갈 생각도 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병장임에도 열심히 꾸준히 교회에 다니던 형제가 좋지 못한 행동을 해서 영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 군종병인 형제가 좋은 말을 하면 “양의 털을 쓴 늑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독교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못합니다. 정말 지켜보기 안타가울 뿐더러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군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라는 곳이 생각보다 믿음으로 버티어 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군복음화의 시작은 군에 있는 지체들이 먼저 올바르게 서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민족복음화를 위한 비전2020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군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롱.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99 열린마자에 접수된 물품들

접수번호	출품내역	기증자(교구)
76	양복상품권 5매	이동만(9교구)
77	행운의 열쇠 1개	김영화·권순단(9교구)
78	전화기 1대	조명녀(9교구)
79	금반지 1개	전용순(9교구)
80	금반지 1개	윤찬오·홍제식(10교구)
81	체중계 1대, 방수기 1대, 의류 5벌	정현숙(10교구)
82	백자 1점, 판화 1점, 이스라엘 인형 1개	이중윤·홍순복(3교구)
83	시계 17개	김시환·김정란(6교구)
84	그림 1점	김경래
85	나주배 50상자	김상릴
86	대형그림 3점, 소품 14점	김진(여의도내과 원장)
88	그림 1점	김종자(6교구)
89	TV 대	김유선
90	의류 3벌, 현금 20만원	유년부
91	전동타자기 1대, 크로마하프 1대	김미란(청년부)
92	의류 9점, 컴퓨터 1대	대학부
93	금반지 8개	무명
94	우리밀만두 판매대금	정무균·이영희(2교구)

▶ 현금드리신 분 = 이옥녀 전기설 광양찬 이장진 김단선 노송성 신동제 오정수 최금례 김건중 김중복 강혜신 김동훈 권영자 윤금자 이권호 손병석 맹선재 왕경래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육해공군 기독교교영성훈련 집회를 12일(금) 충남 논산 계룡대 교회에서 인도한다. 또 11일(목)에는 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 * 한현숙 집사는 1일(월) 추계양상불장단연주회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가졌다.
- * 조은주 집사 오르간 연주회가 11일(목) 경동교회당에서 열린다.
- * 이번 주 식사는 김현영·최현인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당회는 8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이사 및 전화번호 변경

- * 민순구 장로·이영희 권사, 동작구 사당 5동 사당아파트로(☎ 3472-9195).
- * 홍성주·여현진 집사, 노원구 상계 2동 대동아파트로(☎ 931-7418).
- * 박정수·김경옥 집사, 전화번호 변경(☎ 895-3920).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 성서강해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위해
2. 사명자대회와 군선교를 위한 비전2020운동을 위해
3.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주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